

병원간호사의 정치관심도, 정치 효능감 및 매체 이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전소연¹ · 고일선² · 배가령³

연세대학교 대학원¹, 연세대학교 간호대학², 서울여자간호대학교 · 연세대학교 대학원³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Media Usage as Factors Influe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Hospital Nurses

Jun, So Yeun¹ · Ko, Il Sun² · Bae, Ka Ryeong³

¹Graduate School,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³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 Graduate School,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how political interest, efficacy and media usage influen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hospital nurses. **Methods:** Participants were 286 nurses, who were informed of the study purpose and agreed to participate. Data were collected during November and December, 2012 using a questionnaire on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media usag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é'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Results:** Score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interest was average. The score for political efficacy was higher than average. Political particip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education level, job career, position, and intention to vote in the election for the 18th President. Political participation had a moderate positive correlation with political interest ($r=.50, p<.001$), political efficacy ($r=.32, p<.001$) and media usage ($r=.14, p=.022$). Political interest ($\beta=.43$) was the factor most influential on political participation, explaining 25% of the variance. A total of 32% of political participation was explained by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TV news or SNS for media use.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to promote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efficacy for hospital nurses to improve political participation.

Key Words: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Media use, Nurs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정치참여란 정부나 정책, 법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간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적 시민들의 활동[1]으로, 정치적

이슈에 주목하는 정치관여(political involvement)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의 정치개입(political engagement), 기타 정치활동(political activity) 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지만 정치참여로 통칭되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인의 정치 참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시민일수록 정치참여가 활발하며, 성차는 크지 않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참여 수준이 더

주요어: 정치참여,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이용, 간호사

Corresponding author: Bae, Ka Ryeong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38 Ganhodaero-ro, Hongje-dong, Seodaemoon-gu, Seoul 120-742, Korea.

Tel: +82-2-2287-1010, Fax: +82-2-396-8918, E-mail: baekr8385@naver.com

Received: Apr 22, 2014 | Revised: May 20, 2014 | Accepted: Jun 6, 2014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활발하다고 하였다. 또한 투표참여를 제외하고 젊은 시민일수록 더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 인지와 정치효능감을 포함한 시민적 성향이 정치참여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3]. 반면에 간호사의 경우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4].

간호사는 병원조직 구성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인력으로 환자의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또한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가 요구됨에 따라[6], 구성원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루어져있는 간호사들은 조직적 차원에서 정치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간호사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간호사 정치인을 키우며 간호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취지로 1991년에 대한간호정우회가 창립되어, 선거에서 간호사 출신 후보를 지원하며 후보들에게 간호 관련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4월 현재까지 간호사 정치인으로 장관 2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46명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조직적인 정치참여는 크게 활발하지 못하며, 잠재된 정치적 역량과 정치참여는 기대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7]. 또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2013년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대안적 방안 제시와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간호단독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31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이 소통하는데 앞장서고 있지만 대한간호정우회와 더불어 간호사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 간호사의 경우에는 미국 간호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 ANA), 미국 간호교육인정평가위원회(the National League for Nursing, NLN), 미국 간호대학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 AACN)와 같은 전문적인 조직의 노력을 통해 일차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8].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간호사는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정치참여에 긍정적이지만 정치효능감이 낮으며, 정치참여는 선거 때 투표로 그치고 정치가에게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하지 않으면서 정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못 느끼고 있다[9]. 또한 많은 미국 간호사들이 간호사의 돌봄과 정치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전문가로서 보건의료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며, 정치참여 방법과 관련지식이 적고, 정치참여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는 실천적 옹호자로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도덕적 책임이 있고[11], 수준 높은 간

호의 질과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방법과 수단, 보건의료 관련 자원이용과 배분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12], 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치참여를 하지 않는 간호사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영향력 있는 정책결정자를 설득하지 못하는 반면에,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간호사는 건강 관련 이슈에서 전문직 간호사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전문인으로서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따라서 간호사의 정치참여는 국민건강에 대한 간호의 관점을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고 보건 의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전문직 간호의 향상과 질 높은 간호서비스 실천의 장을 확대하고 간호서비스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12].

간호사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가장 대안적인 모델은 Verba 등이 제시한 시민자발성 모델(Civic Voluntarism Model)이다[13]. 시민자발성 모델에 의하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개로, 첫 번째 요인인 '자원'은 인구학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일컫는 개인의 사회적 특성이며, 두 번째 요인인 '심리적 관심'은 정치적 활동을 유발하는 동기부여를 말하는 것이고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적 정보, 정치적 당파성 등을 말한다. 이 중에서 정치효능감과 정치 및 공공의 사건에 대한 개인의 관심인 정치관심도는 시민자발성 모델에서 정치참여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세 번째 요인인 '모집 네트워크'는 개인의 정치참여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정치 참여를 이끄는 조합, 동맹, 협회, 종교 조직 등이다. 이 세 개의 요인에 따르면 개인이 자율단체의 가입과 참여도가 높고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강할 때 정치참여를 활발히 하며, 자원이 부족하거나 정치적 관심, 네트워크가 없으면 정치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3]. 이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치효능감과 정치관심도를 높여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고[14], 미국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8]에서는 심리적 관심 중 특히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적 정보와 지식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외에도 최근 대중매체들이 정치 현상을 매개하는 매개 정치시대(mediated-politics)가 전개되고 있어[15] 대중매체 이용이 정치참

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통적인 대중매체로는 TV, 신문, 라디오 등이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대중매체로 인터넷이 대두되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연결망을 구축하고 활발한 의사소통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 가입자가 4천만명에 이르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로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과 팟캐스트(Pod Cast)의 대표적인 예로 '나는 꼼수다'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새로운 공론장이 형성되어 다양한 여론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매체의 변화로 투표참여로 대표되는 관습적인 정치참여를 넘어 정부정책이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사건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는 등 정치참여의 형태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의료부문의 정책변화와 다양한 논의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매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의료와 관련된 정책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고 다양한 이익집단이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근거와 기준을 제공하는 매체의 역할은 그 어느 정책 분야보다 크다[16].

정치참여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우 국내연구로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14], 여성의 정치참여[6], 대학생의 정치관심, 정치이념성향, 정치정보 탐색활동을 조사한 연구[17]와 매체 이용과 SNS이용이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8-20]가 있었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외의 경우 간호직 발전과 간호정책결정에 간호사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며 정치참여활동과 참여방법 및 참여수준도 미약한 것으로 제시되었다[11,12]. 따라서 현재 우리 간호계가 당면하고 있는 간호 관련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활동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시민자발성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심리적 요인 중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과 최근 정치현상을 매개하는 매체 이용이 병원간호사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간호 관련 정책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 및 정치참여도를 파악한다.
- 간호사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 및 정치참

여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참여도를 파악한다.
- 간호사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정치참여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 소재 500병상 이상의 일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전수인 30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간호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자수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Cohen의 표본수 산출공식에 의거하여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산출결과 회귀분석에서 검정력(1-β)=.90, 유의수준 α=.05, 효과크기 medium .15, 예측 요인 10개로 하였을 때 최소의 표본수는 192명으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정치참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10개 문항, 정치참여 관련요인 중 심리적 요인인 정치관심도 3개 문항, 정치효능감 11개 문항과 매체 이용 5개 문항, 일반적 특성 6개 문항 등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측정도구는 개발자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사용 허락을 받았다.

1) 정치참여 측정도구

정치참여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이슈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인지적 차원과 집회나 선거유세에 참가하여 투표하고 각종 정치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적 차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행위이다[2]. 본 연구에서는 Nam과 Huh[19]가 개발한 정치참여 의향 항목을 Shin[18]이 재구성한 소극적과 적극적 정치참여의 하부영역을 가지는 10개 문항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소극적인 참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글을 남기거나, 전화를 걸어 의견을 말한 적 있는 경

우, 인터넷 정치 사회 문제의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회 정치 문제에 글을 쓴 행동을 포함하였다. 서명 운동 참여, 정당 정치 참여, 간호정우회 가입과 모임 참여는 적극적인 참여로 설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참여 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hin[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 정치관심도 측정도구

정치 관심도는 정치나 정책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는지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정치 관련 기사나 뉴스, 타인의 의견과 태도, 정치적 이슈와 정보를 찾아보는 것을 말한다[21]. 정치관심도 측정도구는 Shin과 Yang[21]의 도구를 근거로 Shin[18]이 재구성한 3개 문항의 정치관심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해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Shin[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3$,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였다.

3) 정치효능감 측정도구

정치효능감은 정치과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정서로 내재적 정치효능감과 외재적 정치효능감으로 구분한다. 내재적 정치효능감은 정치와 정부에 대해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정치효과성 혹은 자신감을 말하고, 외재적 정치효능감은 개인의 요구를 정부가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치체제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대한 일반의식을 말한다[21]. 정치효능감 측정도구는 Nam & Huh[19]가 개발한 정치효능감 도구를 Shin[18]이 재구성한 11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개발 당시 Shin[18]의 연구에서 내재적 효능감은 Cronbach's $\alpha = .83$, 외재적 효능감은 Cronbach's $\alpha = .82$ 였고, 본 연구에서 정치효능감은 Cronbach's $\alpha = .90$, 내재적 효능감은 Cronbach's $\alpha = .83$, 외재적 효능감은 Cronbach's $\alpha = .82$ 였다.

4) 매체 이용 측정도구

매체 이용은 정부, 정치인, 정책, 공직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기준에 영향을 주는 정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뉴스나 정보를 얻을 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매체 이용량을 말한다[22]. 본 연구에서 매체 이용은 Shin[18]이 개발한 TV 뉴스, 인쇄신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 (트위터, 페이스북 등), 팟캐스트(나꼼수 등)에 대한 이용도를 파악하는 5개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미디어 이용량이 많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개발 당시는 Cronbach's $\alpha = .82$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2$ 였다.

5)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인구학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함께 일컫는 개인의 사회적인 특성을 말한다. 연령, 결혼상태, 학력, 월수입, 근무경력, 직급, 18대 대통령 선거 참여의도로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해당 병원간호부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목적과 방법 및 IRB의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대상자에게 간호부를 통하여 병동별로 설문지 300부를 배부하였으며, 배부된 설문지 가운데 회수된 설문지는 290부(회수율 96.7%)이었고, 불성실한 응답 4부를 제외한 286부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이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작성시간은 약 10분가량 소요되었고,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5.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

자료수집하기 전 해당 병원의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KHNMC IRB 2012-109)을 받았으며 자의에 의한 참여로 이루어졌다. 익명이 보장되고, 설문에 포함된 연구내용은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언제든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각 병동별로 설명문을 통해 공지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고 설문에 참여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개별 봉투에 넣어 병동별 대봉투에 넣고 봉한 대봉투를 간호부를 통하여 회수함으로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간호사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 및 정치참여 정도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분석하였다.
- 간호사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 및 정치참여 정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참여 정도는 t-test, ANOVA, Scheffé's test로 분석 하였다.
- 간호사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근무경력, 직급을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0.34 ± 5.90 (최소 20~최대 57)세이었으며, 30~39세가 48.3%로 가장 많았고, 20~29세가 45.8%, 40세 이상인 경우가 5.9%의 순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인 경우가 66.8%, 기혼인 경우가 33.2%로 미혼이 많았다. 학력은 4년제 졸업이 51.0%로 가장 많았고, 3년제 졸업이 33.2%, 석사나 박사인 경우가 15.8%로 60% 이상의 대상자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의 월수입은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1.0%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5.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5.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7%였다. 대상자의 근무경력은 평균 87.34 ± 68.27 (최소 2~최대 417)개월이었으며, 5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가 48.6%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인 경우가 43.0%, 15년 이상인 경우는 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일반간호사가 96.5%로 가장 많았으며, 수간호사는 3.5%였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의 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70.3%로 나타났으며,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29.7%로 투표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가 많았다(Table 1).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상태, 학력, 월수입,

2. 대상자의 정치참여도,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

대상자의 정치참여도는 50점 만점에 평균 23.44 ± 6.50 점 (평균평점 2.34 ± 0.65)이었고, 소극적 정치참여는 평균 7.36 ± 3.19 점(평균평점 1.84 ± 0.79)이었으며, 적극적 정치참여는

Table 1. Political Particip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spital Nurses

(N=2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Scheffé
Age (year)	20~29	131 (45.8)	23.10±6.00	0.76	.470	
	30~39	138 (48.3)	23.55±7.01			
	≥ 40	17 (5.9)	25.11±5.95			
Marital status	Single	191 (66.8)	23.32±6.26	-0.44	.661	
	Married	95 (33.2)	23.68±6.99			
Education level	College ^a	95 (33.2)	22.03±6.39	4.36	.014	a < c
	University ^b	146 (51.0)	23.79±6.65			
	Master/doctor ^c	45 (15.8)	25.28±5.72			
Monthly income (10,000 won)	< 300	117 (41.0)	22.61±6.32	1.12	.341	
	< 400	43 (15.0)	24.11±6.42			
	< 500	25 (8.7)	23.56±4.74			
	≥ 500	101 (35.3)	24.08±7.08			
Job career (year)	< 5 ^a	123 (43.0)	22.90±5.75	3.49	.047	a < c
	≥ 5~< 15 ^b	139 (48.6)	23.43±7.17			
	≥ 15 ^c	24 (8.4)	26.29±5.44			
Position	Staff nurse	276 (96.5)	23.30±6.52	-1.96	.050	
	Head nurse	10 (3.5)	27.40±4.81			
Intention to participate by voting in election for 18th President	Yes	201 (70.3)	24.58±5.82	4.71	< .001	
	No	85 (29.7)	20.75±7.24			

평균 16.08±4.08점(평균평점 2.68±0.68)으로 적극적 정치 참여 점수가 소극적 참여 점수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정치관심도는 15점 만점에 평균 8.32±2.46점(평균평점 2.77±0.82)이었다. 대상자의 정치효능감은 55점 만점에 평균 33.79±6.50점(평균평점 3.07±0.59)이었고, 내재적 효능감은 평균 15.22±4.36점(평균평점 2.53±0.72)였으며, 외재적 효능감은 평균 18.56±3.80 (평균평점 3.71±0.76)으로 외재적 효능감이 내재적 효능감보다 높았다. 한편, 대상자의 TV News, Newspaper, Internet, SNS, Pod cast 등의 매체 이용 정도를 파악한 결과, TV News는 평균 4.02±0.82점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 Internet은 평균 3.88±0.88점, SNS는 평균 3.15±1.08점, Newspaper는 평균 3.09±0.96점, Pod cast는 평균 2.89±1.07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대상자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 및 정치 참여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정치관심도와 정치참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r = .50, p < .001$)를 나타내어 대상자의 정치관심도가 높을수록 정치 참여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r = .32, p < .001$)를 나타내어 대상자의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재적 정치효능감($r = .28, p < .001$), 외재적 정치효능감($r = .23, p < .001$) 모두 정치참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내재적 효능감과 외재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

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매체이용 정도와 정치참여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r = .14, p = .022$)가 있어 매체 이용 정도가 높을수록 정치참여 정도가 높았다(Table 3).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참여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정치참여도는 학력($F = 4.36, p = .014$), 근무경력($F = 3.49, p = .047$), 직급($t = -1.96, p = .050$), 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의도($t = 4.71,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학력에 따른 정치참여도는 석사이거나 박사인경우가 3년제 졸업인 경우보다 정치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정치참여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Media usag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Hospital Nurses (N=286)

Variables	Political participation	
	r	p
Political interest	.50	< .001
Political efficacy	.32	< .001
Internal efficacy	.28	< .001
External efficacy	.23	< .001
Total media usage:	.14	.022
TV news	.14	.017
Newspaper	.12	.046
Internet	.09	.890
SNS	.19	.002
Pod cast	.15	.015

Table 2. Degree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Efficacy and Media usage of Hospital Nurses (N=286)

Variables	Items	M±SD	Min~Max	Mean point±SD	Range
Political participation	10	23.44±6.50	11~43	2.34±0.65	1~5
Passive participation	4	7.36±3.19	4~16	1.84±0.79	1~5
Active participation	6	16.08±4.08	7~27	2.68±0.68	1~5
Political interest:	3	8.32±2.46	3~15	2.77±0.82	1~5
Political efficacy:	11	33.79±6.50	15~53	3.07±0.59	1~5
Internal efficacy	6	15.22±4.36	6~28	2.53±0.72	1~5
External efficacy	5	18.56±3.80	5~25	3.71±0.76	1~5
Total media usage:	5	17.06±3.25	15~24	3.40±0.65	1~5
TV news	1	4.02±0.82	1~5	4.02±0.82	1~5
Newspapers	1	3.09±0.96	1~5	3.09±0.96	1~5
Internet	1	3.88±0.88	1~5	3.88±0.88	1~5
SNS	1	3.15±1.08	1~5	3.15±1.08	1~5
Pod cast	1	2.89±1.07	1~5	2.89±1.07	1~5

는 15년 이상인 경우가 5년 미만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급에 따른 정치참여도는 수간호사가 일반간호사보다 높게 나타났고, 18대 대통령선거에 투표의도에 따른 정치참여도는 투표의향이 있는 경우가 투표의향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1).

5. 대상자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을 위하여 정치참여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력과 직급,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의도,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매체 이용을 포함하였는데 학력과 직급은 더미화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전에 기본가정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차한계 값(tolerance)과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과 오차의 자기상관 값(Durbin Watson)을 산출하였다. 공차한계 값은 0.88~0.96에 걸쳐 있고, 분산팽창인자 값은 1.04~1.14에 분포되어 있어서 독립 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 값을 분석한 결과 2.25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였으며, 회귀모형 적합도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치참여도의 모형 검증 결과는 $F=34.01$, $p<.001$ 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TV News와 SNS의 매체 이용이었으며, 이들 요인이 정치참여도를 3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의 정치참여에 가장 예측력이 높은 요인은 정치관심도 ($\beta=.43$)로 정치참여의 25%를 설명하였고, 그 다음은 정치효능감($\beta=-.20$)이 3%를, TV News의 매체이용($\beta=-.17$)과 SNS의 매체 이용($\beta=-.14$)이 각각 2%를 설명하였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정치참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로써 병원간호사의 정치참여 정도, 정치 관심도, 정치효능감 및 매체 이용현황과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 관심도, 정치효능감 및 매체 이용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사의 정치참여도는 50점 만점에 23.44점(평균평점 5점 만점에 2.34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스콘신의 4개 의료시설과 4개 교육기관의 간호사의 정치참여[12] 정도(평균평점 2.36점)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Shin[18]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정치참여 정도(평균평점 1.98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Shin[18]의 대상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학 1학년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정치참여가 낮게 나타난 반면에 본 연구대상자는 21세 이상의 투표권이 있는 간호사로서 70.3%가 다가올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의 투표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Kim의 연구[23]에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공학생의 정치참여 정도(평균평점 2.76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복지정책은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실질적인 사회적 요구로 표출되지 않으면 정책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를 높이려고 노력한다고 지적한 것 [23]처럼 간호사보다 정치에 민감하여 정치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상자들의 정치참여 정도는 학력이 석사이거나 박사인 대상자가 3년제 졸업인 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학력이 대학원인 대상자가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인 대상자보다 정치참여 정도가 높게 나타난 Kim의 연구[23]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사회복지사의 최종학력에 따라 정치참여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Hwang의 연구[24]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 중 15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가 5년 미만 경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of Hospital Nurses

(N=286)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R	Adjusted R ²	t	p
Political interest	1.14	.14	.43	.50	.25	8.29	< .001
Political efficacy	-0.20	.05	-.20	.53	.28	-3.89	< .001
TV news	-1.37	.39	-.17	.55	.30	-3.46	.001
SNS	0.85	.30	.14	.57	.32	2.81	.005

Durbin Watson=2.25, $F=34.01$, $p<.001$, VIF=1.04~1.14, Tolerance=0.88~0.96.

력의 간호사보다, 수간호사가 평간호사보다 정치참여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Vandenhouten 등의 연구[8]에서 간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가 15년 미만인 경우보다 정치참여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15년 이상 경력 간호사의 연령이 40세 정도로, 중간 관리자인 리더로써 정치적 안목과 관심이 생기는 시기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관심이 다른 간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또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치참여 영향요인 연구[14]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정치참여수준이 증가하고 중년층인 40대와 50대의 사회복지사 정치참여가 최고에 이르는 것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시민자발성 모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인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 중 정치관심도의 경우 본 연구대상자의 정치관심도는 15점 만점에 8.32점(평균 평점 5점 만점에 2.77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단체에 가입한 미국 중서부 간호사의 정치참여도(평균평점 3.71점)[10]보다 낮았고,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관심도(평균평점 3.61점)[25]보다도 낮게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대학생의 정치관심도(평균평점 2.14점)[18]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 중서부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대상자도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간호단체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관심도가 낮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정치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정치효능감은 55점 만점에 33.79점(평균평점 5점 만점에 3.07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공학생의 정치효능감(평균평점 3.57점)[23, 26]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정책 결정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아 민감한 복지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효능감이 높다고 지적한 것처럼[23] 사회복지사가 병원간호사보다 정책에 관심이 많아 정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간호사의 정치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보건정책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반면에 Cramer[10]가 제시한 미국 중서부 간호사의 정치효능감(평균평점 2.99점)과 Vandenhouten 등의 연구[8]에서 제시된 미국 간호사의 정치효능감(평균평점 2.44점)보다는 본 연구대상자의 정치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관적으로 믿는 신념인 정치효능감이 우리나라 간호사가 미국의 간호사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본 조사를 실시한 점과 최근 간호계의 쟁점화된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간호사의 보건의료정책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간호사가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인 정치효능감을 높이도록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활동을 위한 노력과 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인 병원간호사의 외재적 효능감(25점 만점에 18.56점으로 평균 평점 3.71점)이 내재적 효능감(30점 만점에 15.22점으로 평균 평점 2.5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치효능감을 측정한 연구결과[18]에서 외재적 효능감(평균 평점 3.58점)이 내재적 효능감(평균 평점 2.48점)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병원간호사들이 정치체제에 대해 반응하는 외재적 정치효능감은 높지만 자신이 정치에 효과성을 낸다고 생각하는 내재적 정치효능감은 낮기 때문에 간호사 스스로 정치에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대응, 전문직 의료인으로서 정치참여, 정치적 리더쉽 고양 등에 대해 개개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정립, 프로그램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병원간호사가 정치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매체 이용은 TV 뉴스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SNS, 인쇄신문, 팟캐스트 순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참여의 수준을 조사한 연구[9]에서 간호사의 90.4%가 TV나 신문, 라디오로 매일 정치 관련 뉴스를 듣거나 보며, 간호사의 88.1%가 친구나, 동료, 가족들과 현재의 정치 관련 뉴스나 사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정치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Shin[18]의 연구에서 대학생이 정치 및 사회적 이슈 관련해 매체를 이용할 때 인터넷 이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TV뉴스, SNS, 인쇄신문, 팟캐스트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들은 대학생들과는 달리 TV를 인터넷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였지만 정치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매체 이용 자원은 동일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매체 신뢰도가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7]에서 대학생들은 TV나 신문보다는 인터넷과 케이블TV를 가장 많이 신뢰하고, TV전문성과 인터넷 전문성만이 정치효능감과 투표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여성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25]에서 대다수 여성들이 TV 뉴스와 신문을 통해 정치 관련 정보를 접하였다는 결과와 SNS이용이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20]의 연구에서 SNS이용이 내재적 정치효능감과 오프라인 정치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정치 관련 지식을 높이고 정보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TV 뉴스이외에도 인터넷이나 SNS 등의 매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병원간호사의 정치관심도가 높을수록 정치참여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의 연구[23]에서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흥미가 높을수록 정치참여도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 교육 활성화에 대한 연구[14]에서도 정치관심도와 투표와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높고 정치적 사건이나 선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대중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많이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8] 결과 정치관심도가 높을수록 소극적 정치참여와 적극적 정치참여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간호사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간호계의 현안문제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사의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23]와 일치하였다.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교육 연구에서 정치효능감과 투표와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아지며, 대중 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14]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청소년과 대학생의 내재적 정치효능감과 외재적 정치효능감은 각각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 의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제시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19]. 따라서 간호사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정치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참여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며, 특히 지도력을 기르고 정치의식을 깨워 정치적 파워 향상과 리더십 개발을 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사의 정치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TV 뉴스, 인쇄신문, SNS, 팟캐스트 이용이 많을수록 정치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체 이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18]에서 대학생들이 19대 총선에서 후보 결정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매체는 인터넷과 TV, 신문, SNS의 순이었고, 지지후보와 정당결정에 매체별 이용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 신문 매체 이용의 정치참여가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 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한 결과와 비슷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와 관련된 사항은 직접 경험하여 정치 체제에 따

른 변화를 경험하여 알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정치 체제와 이념 등을 이해하여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공공의 간호를 위해 간호사의 전문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미국 산업간호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AAOHN)나 미국간호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 ANA)에 가입하여 조직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28],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의 안전을 공지하거나 제안을 받기도 하고 건강 전문가로써 정책 수립을 위한 만남을 조성하는 장이 되고 있다[29]. 이처럼 간호사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매체 접근성을 높이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정우회 등 조직차원에서의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사의 정치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TV 뉴스와 SNS의 매체이용 순으로 정치참여도를 32% 설명하였고 이중 가장 예측력이 높은 요인인 정치관심도는 간호사의 정치참여 정도의 25%를 설명하였다. 이는 Verba 등[13]의 시민자발성 모델에서 개인의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강할 때 정치참여를 활발히 한다고 제시한 것처럼 병원간호사의 정치참여도 개인의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정치관심도가 가장 영향력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정치효능감, 정치적 지식이라고 설명한 연구결과[26]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Shin과 Yang [21]의 연구에서 정치관심도가 정치커뮤니케이션 참여에 대해 33.1%의 설명력을 가진다는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실태와 영향요인을 조사한 Kim[23]의 연구에서 정치적 흥미, 정치효능감, 학력, 월수입이 43.3% 설명력을 가진다는 결과와 Vandenhouten 등[8]의 연구에서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 지식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정치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관심도를 향상시키며 정치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효능감을 고취시키는 간호사의 주관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병원간호사의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및 매체 이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대상자는 S시 종합병원의 간호사 286명이었으

며, 연구도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간호사의 학력, 경력, 직급, 투표의도에 따라 정치참여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 및 TV 뉴스와 SNS의 매체 이용이 높을수록 정치참여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의 정치참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관심도($\beta=.43$)이었으며, 정치효능감, TV News, SNS의 매체 이용이 포함되어 전체 정치참여를 32%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병원간호사의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참여가 높았으며 TV 뉴스와 SNS의 매체 이용이 높을수록 정치참여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간호사의 정치관심도와 정치효능감을 높여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매체의 이용을 통해 간호사의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매체의 접근성 증진과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향후 간호사의 정치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Verba S, Nie NH.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NY: Harper & Row; 1972.
2. Hwang Y-S. A Exploratory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01;45(3):421-456.
3. Park CW.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Korean Citizens: An Analysis of the 2004 General Social Survey Data. The Asi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2005;14(1):147-193.
4. Korean Nurses Political Society. Nurse Power [Internet]. Seoul: Korean Nurses Political Society, 2011 [cited 2013 December 30]. Available from: <http://www.nursepower.or.kr/ebook/1236/webbookstart.html>
5. Aboud S. Influencing health care in the legislative arena.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2007;12(1):3.
6. Kim H-J. A study on political strengthening of women on the basis of political participation. Women's Studies Review, 2008; 25:101-138.
7. Loviglio, J. Radio's intimate public: Network broadcasting and mass-mediated democracy.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5.
8. Vandenhouten CL., Malaker CL., Kubsch S, Block DE, Gallagher-Lepak S.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gistered nurses. Policy, Politics & Nursing Practice, 2011;12(3):159-167. <http://dx.doi.org/10.1177/1527154411425189>
9. Holbert RL, Hansen GJ, Mortensen S, Caplanc SE. An analysis of the relative influences of Fahrenheit 9/11 and presidential debate viewing on shifting confidence in President George W. Bush.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2006;23(3):209-216. <http://dx.doi.org/10.1080/08824090600796427>
10. Cramer ME. Factors influencing organiz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nursing. Policy, Politics, & Nursing Practice, 2002;3(2):97-107. <http://dx.doi.org/10.1177/152715440200300203>
11. Lee KY.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media usage pattern, political ideology and political behavior. Journal of Social Sciences, 2007;46(2):205-231.
12. Kim S-H, Scheufele DA, Shanahan J. Who cares about the issues? Issue voting and the role of news media during the 2000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Journal of Communication, 2005;55(1):103-121. <http://dx.doi.org/10.1111/j.1460-2466.2005.tb02661.x>
13. Verba S, Schlozman KL, Brady HE.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14. Kim KY. The study about social worker'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state and an influenced factor.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Conference.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Conference, 2005. p. 651-673.
15. Boswell C, Cannon S, Miller J. Nurses' political involvement: responsibility versus privileg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005;21(1):5-8. <http://dx.doi.org/10.1016/j.profnurs.2004.11.005>
16. Sohn S, Lee G, Lee S. Comparativ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frames of news articles on healthcare: differences from administration changes and media's ideological orient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14; 58(1):306-330.
17. Hong SJ. The Influence of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ideology and Information Searching goal on Political Information Search: With wome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9.
18. Shin JS.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Media Use among College Students on their Political efficacy and Participation-Focusing on the 19th General Election- [master's thesis].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2.
19. Nam IY, Huh IS. Adolescents' and university students'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y using media.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2012;24:5-35.
20. Choi JH. The influence of SNS use o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2012;27:369-408.
21. Shin D-U, Yang H-S.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media properties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political communication of voters.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2010;13(2):137-159.
22. Primomo J. Changes in political astuteness after a health sys-

- tems and policy course. *Nurse Educator*. 2007;32(6):260-264. <http://dx.doi.org/10.1097/01.NNE.0000299480.54506.44>
23. Kim KY. The study about social worker'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state and an influenced factor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4.
24. Hwang SY. A research of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political participation [master's thesis]. Seoul: Han Yang University; 2012.
25. Cho H, Lee JK, Kwak J-Y. The impact of political information on women's political attitudes: A study by focus group discussion.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000;16(2):105-143.
26. Hamilton D, Fauri D. Social workers' political participation: Strengthening the political confidence of social work student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002;37:321-332.
27. Park S-H, Sung D-K.(2005). Study on the impact that a media credibility influences on the political efficacy and voting action: with a focus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2005;49(4):110-140.
28. Ritter JA. A national study predicting licensed social workers'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ole of resources, psychological engagement, and recruitment networks. *Social Work*. 2008;53(4):347-357.
29. American Nurses Association. Policy & Advocacy[Internet]. Silver Spring, MD: American Nurses Association. 2014, cited 2014 May 10. Available from: <http://www.nursingworld.org/MainMenuCategories/Policy-Advocacy>